석달 간 집중 수행…을사년 동안거 용맹정진 시작됐다

12월 4일, 결제 법요식 봉행
해인사 188명 스님 수행정진
수덕사에는 260명 결제 첫발
범어사 120명 수좌스님 입선
송광사 17명 포함 70명 동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유재상 충청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 2569년 을사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12월 4일 시작됐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해인사, 수덕사, 송광사, 범어사에서 봉행된 결제 법요식 후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전국의 선원 스님들이 석달간의 겨울 집중 수행을 펼치는 불기 2569년 을사년 동안거 용맹정진이 12월 4일 시작됐다.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2월 4일 경내에서 을사년 동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방장 대원 대종사는 법어에서 "즉하에 계합해서 몰록 깨달아 증득하면 불조가 밟은 길을 파하여 뛰어나리라. 나무사람은 티끌 속에서 연꽃 궁전에 오르고 돌여자는 고갯마루에서 줄 없는 거문고를 탄다"는 법어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지혜 바다의 주장자는 혹 금강왕보검을 짓고 혹 땅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의 모습을 지으며 혹 낚싯대와 풀잎의 그림자 탐색을 짓고 혹 주장자 쓰는 것은 짓지 않는데 모든 사람은 도리어 알았는가"라고 묻고 "만약 안다면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의지한 것 같음이라. 나고 없어지며 거두고 펴서 종횡으로 응해 쓰니. 만약 서로 알지 못한다면 해 가운데 도망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설했다. 올해 해인총림 을사년 동안거에는 산내 선원에서 188명의 스님이 수행 정진한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도 같은 날 경내 대웅전에서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덕숭총림 제방선원에 방부를 들이고 3개월 간 용맹정진을 서원한 260명의 선원 대중과 외호 대중이 결제의 첫발을 내디뎠다.

방장 우송 스님은 법어에서 "부처님 은혜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길은 방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신발 바로잡고, 활짝 웃는 얼굴, 이놈 만나는 일"이라며 "오직 이놈이다. 목탁 소리도 이놈이요, 대중 소리도 이놈이다. 시심마라, 이놈이 무엇인가?"라고 설해 수행납자들에게 화두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지 도신 스님은 "선원 스님들과 정진 납자들이 건강에 유념하시고 수행이 원만하시길 기원한다"며 "수좌 스님들을 모시는 데 소홀함도 없도록 외호에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을사년 동안거 결제 참석 현황도 보고됐다. 정혜사 26명, 향천사 7명, 천장사 7명, 개심사 9명, 견성암 41명, 보덕사 14명, 법륜사 11명, 법계사 51명, 강원 9명, 율원 11명, 염불원 7명, 수덕사 산내암자 극락암 2명, 선수암 4명, 한희대 10명, 수덕사 외호대중 50명을 포함해 총 260명이 동안거 정진에 임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도 이날 경내 보제루에서 을사년 동안거 결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방장 정여 스님은 이날 결제 법어에서 "동안거는 스스로에게 속지 않는 수행"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내가 일으킨 생각에 내가 속아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사"라며, 생각이 만들어낸 허망한 그림자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 허망함을 초월해 본래 마음을 보면 부처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어리석은 집착을 여의고 참나를 찾는 동안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올해 범어사 동안거에는 금어선원과 대성암 선원을 비롯한 선원, 율원, 염불원 등 사중 수행처에서 약 12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입선했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도 경내 대웅보전에서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3개월 동안 이어질 동절기 수행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결제에는 선원 수좌 17명을 포함해 율원·강원·산내암자·외호대중 등 70여 명이 안거에 동참했다.

법어에 나선 방장 현묵 스님은 수행자의 올바른 안목인 '정견(正見)'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견은 수행의 나침반과 같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며 "부처님께서도 팔정도 가운데 가장 먼저 정견을 내세우며 성도 후 일체중생이 지혜와 덕성을 갖추었으나 번뇌에 가려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다"고 설했다.

또한 스님은 효봉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해 "사상의 실체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도끼뿔 지팡이로 산을 넘고, 배를 타고 생사의 바다를 힘차게 저어 나아가면 분별이 사라진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고 일깨웠다.

12월 3일자(1557호) 신문에 게재되지 못한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의 법어는 QR코드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마법, 승가다운 승가 만드는 최적의 장치"

전자불전硏, 12월 1일 남산책방서
'갈마, 불교의 공의제도' 세미나
"승가공동체 의사결정 핵심 제도"



율장에 나타난 갈마법의 본질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현대 한국 승가 운영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소장 주경 스님)는 12월 1일 서울 남산책방에서 '동국대학교불교학술원세미나-갈마, 불교의 공의제도'를 개최했다.

'갈마'는 '승가갈마(僧伽羯磨)'의 줄임말로 포살(布薩)이나 자자(自恣)와 같은 승가의 정기적 행사를 비롯해 새로운 의결과 쟁사(爭死) 등을 해결하는 공식회의다.

이날 봉녕사금강율학승가대학원 부교수 정현 스님〈사진〉은 '화합승가의 갈마법 이해'에서 갈마법에 대해 "승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여법하게 진행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먼저 갈마법의 핵심 주석서인 도선의 '사분율산번수기갈마'를 중심으로 갈마의 분류 체계, 참여자의 자격 요건, 실행 원칙과 예외규정, 그리고 여법한 성립 기준을 검토한 정현 스님은 "현전승가의 화합 운영을 전제로 정밀한 성립 요건과 절차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승가가 직면한 조직 운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갈마법이 과거 문헌 속에 존재하는 고대 인도의 승가 운영 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승가다운 승가'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적 장치라는 것. 정현 스님은 "갈마법은 1인 독단을 방지하고 대중 합의에 기반해 의사를 결정하며 투명한 절차로 집행하는 승가 특유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며 "특히 사찰 재산 처분이나 징계와 같은 주요 의사결정에 백이갈마·백사갈마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현재 발생하는 상당수의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승가라는 독특한 공동체에 특화된 갈마법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 횡령·불법 처분·징계 쟁송은 물론 세속에서 발생하는 도박이나 성범죄 같은 비위 사례들이 승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현대 한국불교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갈마법의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화합승가 실현을 위한 제안으로 △계율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갈마법 이해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갈마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스님은 "현실을 고려할 때 종단 및 사찰의 소임자뿐 아니라 승가 전체가 갈마법을 필수적인 승가 운영의 조직론으로 인식하고 학습과 실천을 통해 승가 공동생활과 일상에 복원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한국불교는 오랜 전통과 대승불교의 두터운 기반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한 '계율 준수'의 구호를 넘어서 계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율장 연구를 활성화하며 포살과 자자 등 핵심 갈마법을 사찰 운영과 일상 수행 속에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한국불교는 율장 전통의 재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국제교류위, 내년도 한국불교 대표役 수행

10월, 한중일대회 한국 개최 대비
성파 스님 美 하버드대 전시 준비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진성 스님)가 내년도에도 활발한 해외 교류와 포교 활동을 이어간다. 국제대회 참가와 국제기관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해외 행사 개최·지원하며 국제 불교계에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운현빌딩 8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국제교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사진〉

내년 10월에는 제26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가 한국에서 열린다. 이에 상반기부터 예비회의를 열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첫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중국, 한국, 일본 불교계가 순차적으로 개최해 온 대표적인 불교 국제행사다. 올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25차 대회가 열린바 있다.

국제교류행사에도 대거 참석한다. 1월 24~25일 인도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불교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5월 26~28일 중국에서 열리는 2025 유엔베삭데이에 동참한다. 제4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참석을 위해 6월에는 일본을 방문한다. 9월에는 '한국불교세계화'를 기치로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예술 작품 전시와 강연이 미국 하버드대에서 준비됐다. 이 밖에도 10월에는 태국에서 열리는 WFB 집행위원회에, 11월에는 IBC총회 등이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도 전법 포교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준비됐다. 4월에는 주한대사관 대사 및 관계자 초청 불교문화 체험행사와 외국어 인재 활용 워크숍, 몽골 간단사 주지 연등회 초청 등이 진행된다. 8월에는 한국-스리랑카 문화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계종단의 첫 해외복지 시설인 한국-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에 종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외국인 스님 교육을 실시한다. 국제교류위원회의는 3월과 8월, 12월 등 3차에 걸쳐 개최, 내실을 다진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올 해 빛난 실천가 격려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복지유공자 30여 명 표창 수여

불교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자비나눔을 실천해 온 실천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12월 3일 서울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27회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다.

이사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이날 상을 받는 30여 기관과 개인은 물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한 이들에게 무한 감사와 찬탄을 보냈다. 올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은 구미 연꽃어린이집 원장 경륜 스님을 비롯해 권순호 안성시노인복지관 부장, 국제재난심리지원단 이지스 등이 받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은 권희정 신안어린이집 원장과 조계종자원봉사단 불이회 등이 수상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성평등가족부 장관·문화체육관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장 공로장 등이 30여 단체와 개인 유공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시상식 후에는 '불교상담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사회복지현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임은호 기자

11개 전법단, 출가 장려·신행 확산 발맞춘다

12월 2일 분야별 전법단장 회의
선명상·밀라노 선전 법회 등



조계종 전법단(총재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월 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분야별 전법단장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을 공유했다.〈사진〉

포교부장 정무 스님은 내년 포교부 3대 역점 사업을 △출가 장려 △신도 등록 활성화 △결계포살제도 시행으로 제시하고 전법단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도 전법단 예산은 1억 6700여 만원으로 책정됐다.

병원전법단은 내년 3월 '병원포교, 홀로서기에서 함께하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그동안 개인의 원력에 기대온 병원포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전법단은 내년 여름과 겨울 2차례 '경찰불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한편,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경승 운영 실태와 경찰불자회 활동 등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청년대학생전법단은 내년 2월 5일부터 13일까지 36개 대학 동아리 회장과 지도법사의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히말라야 선명상 트레킹'을 진행한다. 국제전법단장도 서울 홍대선원과 뉴욕 조계사, 네팔 저스트비 히말라야를 거점으로 한국불교 세계화와 교류 확대에 나선다.

체육인전법단은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불자 선수 심신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선전 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불자선수 템플스테이와 꿈나무불자선수 장학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송정인 수습기자



탄자니아 보리가람대학 7회 졸업식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11월 28일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제7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아름다운동행이 9년째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이번 제7회 졸업식에서 7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누적 530여 명의 인재를 사회에 보내게 됐다. 임은호 기자